

신 양

차 례

1. 공인종교
2. 무속신앙
3. 마을신앙

제주도의 마을들은 어느 곳이나 마을의 설촌(說村)과 함께 “본향당”이 구비되었고, 그로 인해 생겨난 본풀이가 전승되어 마을 주민들의 생활의 역사를 신화로 남기고 있다. “고성(古城)”이 “옛 성이 있었던 마을”이란 뜻이라면, 조선시대의 “수산성”을 쌓기 전에 있었던 옛 성이 “고성”이다.

이 부근의 마을들은 모두 大水山峰(=물뫼)을 중심으로 산으로부터 해변으로 고잡(수산2리)-수산1리-고성-동남-오조-신양으로 나뉘어졌지만 모두 수산에 있는 “올레마루당”을 본향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부근의 마을들은 6·25를 전후하여 동남·오조리를 중심으로 천주교, 기독교가 교세를 전파하기 시작했고, 외래종교를 터부시하는 토착 신앙도 다양해 풍수·단군·찬물교 등 여러 종교의 분포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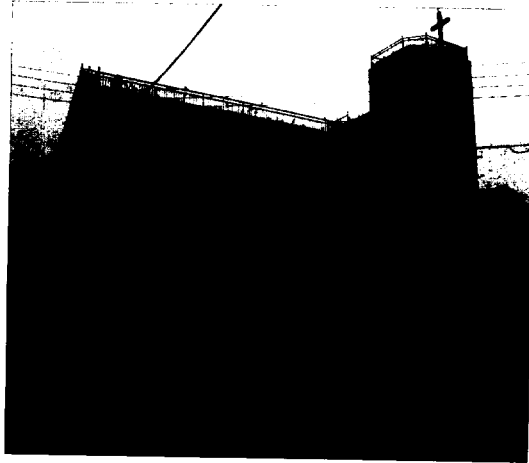
1. 공인신앙

1) 천주교 성산포 교회

천주교 성산포교회는 6·25때 피난을 왔던 신도들이 서귀포 교당에서 신부님을 초빙하여 미사를 한 것이 고성리에서의 첫 미사였다고 한다. 천주교에는 “판공성사”란 것이 있는데, 죄를 고백하는 예배이다. 그 당시 서귀교당의 신부님은 한 바드리오였는데,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연유를 말해 “판공성사”를 받고, 그 분을 1957년, 고성이 1375번지 홍양요씨 사택으로 초빙하여 표교를 한 것이라 한다. 지금은 신도수가 예전보다 줄었지만 현재도 여러 곳에서 꽤 많은 신도들이 찾아온다 한다.

2) 대한기독교 장로회 동남교회

동남교회는 1975년 5월 4일에 고성리 1212-1번지에 강남신 전도사에 의해 처음 세워졌다. 현재 신도수는 100여 명 정도이고 고성리 주민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현재 동남교회를 맡고 있는 제종원 목사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제주도에 온지는 9년이 되었고, 동남교회를 맡은 것은 7년 전부



<동남교회>

터라고 한다. 동남교회는 1995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성리 지역사회와의 화합을 위해 침술, 안마봉사 등을 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음악회도 열었으며, 주변 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3) 왕국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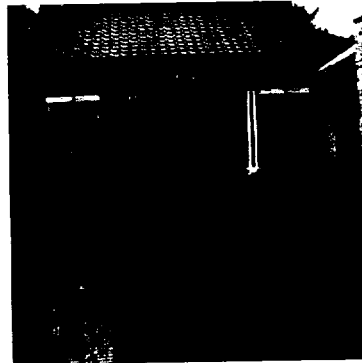
왕국회관은 메시아가 내려와 온 나라를 통합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믿는 기독교의 한 종파로서 성경의 바른 실천을 교리로 하며, 추로 하도 성서에 어긋나면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이 교회는 교회를 처리하는 계급이 없고, 직제가 있다고 해도 노령자를 “장로”라 하고, 성경에 통달한 사람을 “전도인”이라 한다.

4) 원불교 성산교당

원불교는 1961년 소태산 대종사 박중빈의 깨달음에 의해 시작되었다. 원불교 성산교당은 1986년 2월 고성이 1174-3에 임시로 교당을 설치 청 소년 교화 사업을 중점으로 교세를 개척해 나가고 있다. 현재 고성리 1076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원불교 어린이집, 노인회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과 복지에 힘쓰고 있다. 신도 수는 백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5) 대한불교 태고종 복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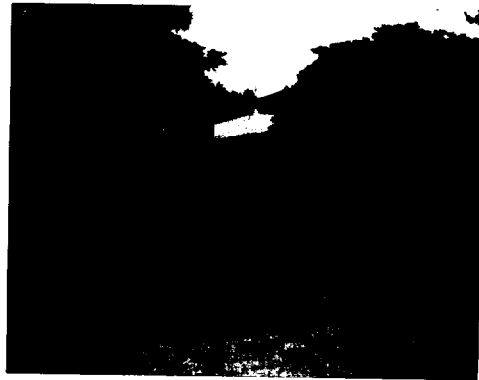
이 절은 1956년 봉암스님과 정연홍 보살이 창건하였으며, 후에 정연홍 보살이 운영했으나 2001년 정연홍보살의 사망 후 2003년부터 영봉스님이 현재까지 복천사를 맡고 있다. 신도 수는 과거와는 달리 정연홍 보살이 죽은 후 급격하게 줄었으며 현재 신도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5제일에 맞춰서 1년에 5번 정도 법회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는 영봉스님의 개인수양의 장소가 되고 있다.



<복천사>

6) 대한불교 태고종 남안사

이 절은 1959년에 지어졌으며, 최진수 스님과 현신옥 화주스님이 법당을 창건하였다. 1960년에 “사라호” 태풍으로 법당이 무너져 신도들의 모금으로 법당을 다시 지었으며 객실도 지었다. 신도 수는 과거에 비해 줄었고 법회 때에나 모인다고 한다.



<남안사>

2. 무속신앙

고성리 마을 내에는 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웃 마을에 있는 당을 찾는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찾는 당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1) 울레머루 하로산당

수산에 있는 ‘울레머루 하로산당’은 수산·고잡·고성·오조·성산리에 서 공동으로 모시는 당이다. 먼 거리이지만은 제일마다 많은 주민들이 다닌다.

제일: 신과세제(음력 1월 2일), 영등제(1월 15일), 영등 송별제(2월 13일), 백중 마불림제(7월 8일), 시만국대제(11월 14일)

2) 진암할망당

수산성터 뒤쪽에 있으며, 이 당에는 성산읍뿐만 아니라, 멀리 서귀포나 제주시에서도 찾아오는 영험이 있는 당으로 알려졌다 한다.

제일: 자일(子日), 묘일(卯日)에 맞춰 다니며, 특히 밤에는 자시(子時)에만 가는 것이 특징이다.

3) 신양리 하로산당

이 당은 수산 “올레마루 하로산당”에서 가지 갈라 온 신양 분향당이며 하르방당이다. 현재 신양리의 주민들은 다른 당을 다니는 것보다는 이 하로산당에 간다고 한다. 통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할 수 있다.

제일: 올레마루 하로산당과 같지만 영등송별제 만든 2월 16일 날로 올레마루(2월 3일)와 다르다. 가지 갈라오기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수산에서 분당하여 “중통굴”로 모셨다가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한다.



<하로산당>

4) 신양리 해신당

이 당은 족지 일렛당으로 어선과 해녀를 보살피는 당이다. 당신의 본초는 “족지일뢰 정판서 정서경 용해 대부인”이다. 해신당은 신양리 해안도로 옆 해변 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를 돌담이 막고 있어 밖에서는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이 해신당에 대해서는 고령의 해녀분들은 함구할 정도로 점점 잊혀져

가는 다른 당과는 달리 아직도 해녀들에게는 중요한 곳이다.

제일: 청명과 한식 그리고 6월과 11월 일렛날(7일,17일,27일)이다. 평상 시에는 자기 생기 복덕에 맞추어 수시로 다니며, 보통 요왕제·뱃고사는 용날이나 술일(개날)을 택한다.

5) 신양리 오근드리 일렛당

일렛날에 다니는 일렛당인데 주위에 밭과 소나무 숲으로 인해 그 위치를 찾기가 힘들며, 신양리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은 이 곳을 다니는 사람들은 없다고 한다. 단지 심방이 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곳의 위치를 주민들의 태반이 모를 정도이고, 그 외의 젊은 주민들은 “오근드리 일렛당”을 알지 못하고 신양리의 “하로산당”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잊혀진 당이라 할 수 있다.

제일: 6월, 11월

■조사자: 김종환(03), 김여름(03), 허준영(06), 현의정(07), 김재성(07), 박중건(07), 전미희(07), 현효민(07)